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김 명 소[†] 김 금 미 한 영 석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성균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와 양성평등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위이론(Fishbein & Ajzen, 1975)과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및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가 포함된 대안모형의 상대적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전국 7대 도시의 20~64세 남자 성인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해서 양성평등행동의도의 35.2%,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서 45.9%가 설명되었고, 양성평등행동은 각각 37.3%, 39.6%가 설명되었다. 후속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변인들에 도덕적 책무가 추가되면 양성평등행동의도의 55.4%, 양성평등행동의 40.8%가 설명되었다. 이때 도덕적 책무는 주관적 규범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덕적 책무가 추가된 대안모형을 제안하고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을 높이기 위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함께 도덕적 책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성평등행동, 양성평등행동의도,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도덕적 책무

[†] 교신저자 : 김명소, (336-795)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 29-1,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E-mail : mskim@office.hoseo.ac.kr

본 연구는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이 이론들의 대안모형으로 도덕적 책무가 포함된 모형의 추가적 설명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목할만한 변인들을 가려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연구의 필요성

한국이 2010년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즉 1인당 국민소득을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 16개국의 평균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소득을 향후 7년간 현재의 약 5배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것은 곧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타 OECD 회원국의 6배에 달하는 연간 6.1%의 고성장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즉 한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기술 등 고성장 신규산업 및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약 3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가운데 120만개는 전문직이 되리라고 예상된다(여성부, 2002). 또한 이 전문직 인력은 주로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을 갖춘 인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93%로 미국이나 스웨덴 등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경제협력기구, 2000).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터키나 멕시코보다 낮은 54%이며,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경제협력기구, 2000). 결국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따라서 120만개 전문직의 상

당 부분에서 여성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이제부터 여성이 위에서 언급한 많은 전문직을 채워나갈 준비를 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별에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성역할에 관련된 편견이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여성은 사회로 나서기를 주저할 수 있다. 아무리 한 정부에서 4명의 여성장관이 동시에 기용되고, 여성이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성이 사회 각 부분에서 힘을 발휘하여도, 사회 저변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똑똑하면 시집가는데 지장이 있다’ 등의 시각이 있다면 여성 개인으로서 갈등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역할에 관련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2002년 11월에 여성부에서 제시한 ‘21세기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길 청사진’에 포함된 10대 핵심정책과제에서도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 마련에서 여성도 성차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남성이 주된 세력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의 생각이 공적 사회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남성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태도에 관한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 및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을 빌

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부각시키는 연구가 아니라, 양성평등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키면 효율적일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면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태도가 행동을 항상 예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태도-행동 논쟁에서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언급되면서 행동을 정확하게 예언하려면 태도와 행동 이외에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이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이다. 태도 연구에 대한 비판 가운데 태도와 행동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데 초점을 둔 비판에 대해, 이 이론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가 행동을 예언하는데 결합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수정되기 전까지 태도-행동 연구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Norman & Smith, 1995).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주된 결정요인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이다(Norman & Smith, 1995). 그림 1과 같이 행동 의도는 다시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이것은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를 말한다. 태도 혹은 행동평가의 호의성 정도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 결과를 일으킨다는 지각된 확률에 해당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에, 이 결과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곱하여 얻어진다.

둘째,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그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과 동조 동기이다(Ajzen, 1988). 어떤 행동을 하는데 대해 다른 사람 즉 특정 참조대상으로부터 압력에 대한 지각과 이런 기대에 따르려는 동기를 곱하여 얻는다.

정리하면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외생변인들로 보고 행동의도를 행동의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여 행동을 근접된 단거리에서 예언한다(나은영,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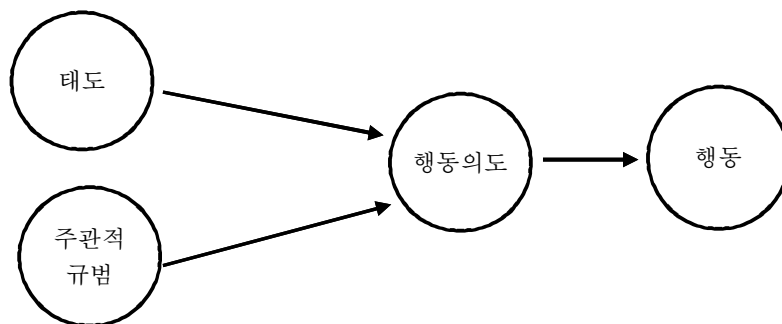


그림 1.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르면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의 정확한 예언 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만일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실행할 수 있거나 행동을 수행할 적절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 강도는 약해질 것이다(한덕웅 · 이민규, 2001). 그런데 예를 들어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 측면에서, 양성평등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행동방식을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행동이 완전히 개인의 통제 하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Ajzen(1988)은 행동이 개인의 통제력 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행위 이론을 확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행동이 개인의 통제력 밖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력 하에 있는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Terry & O'Leary, 1995).

따라서 Ajzen(1988, 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외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이라는 측정치를 포함시켰는데, 이 변인은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말한다. Ajzen과 Madden(1986)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행동발생을 막는 외부요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적절한 기술을 지녔는지 여부는 실제로 그 사람이 행동을 수행하려는 시도를 하기 전까지는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실제 통제력의 대리 측정치로 지각된 통제력 측정치를 선택하였다. 즉, 불완전한 의지적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행동에서는 행동적 제약이나 촉진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행동통제력은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장애물이나 방해요인이 없으면서 자원이나 기회가 많다고 지각하면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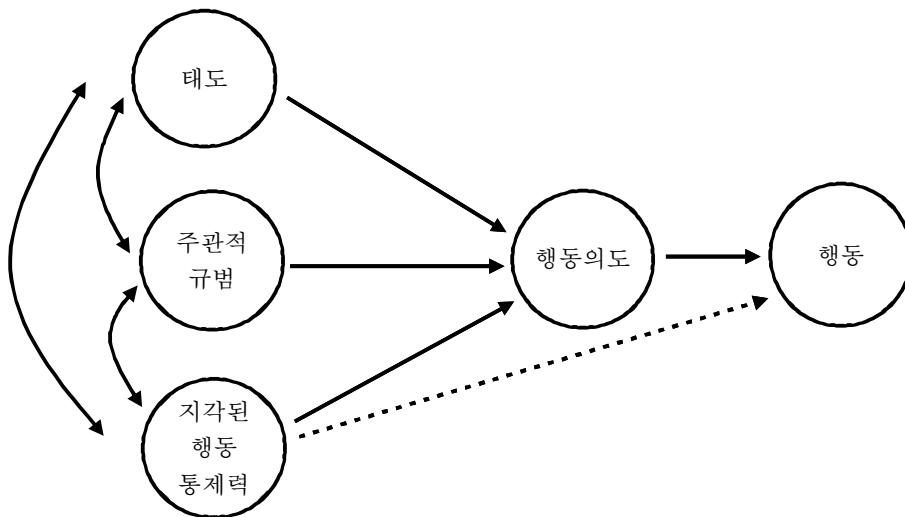


그림 2. 계획된 행위이론 모형

다고 가정한다(한덕웅·이민규, 2001). 예를 들면 자신이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없고 이 행동을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더 가지고 또한 그 행동을 더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예언하고, 자신이 그 행동에 통제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정확할 때 실제 행동수행을 예언한다.

요약하면, 합리적 행위이론이 개인의 의지에 따르는 의도적 행동에 관하여 예언하고자 하였지만, 실제적인 많은 행동들은 자신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의지적인 행동까지도 설명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이 제안되었다(Ajzen, 1988, 1991). 이 이론의 모형에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관한 신념 이외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포함된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를 통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과 아울러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Ajzen(1991)은 구직 활동, 음주 문제, 선거행동, 학점관리, 체중관리와 같은 다양한 행동에서 이 모형의 우세성을 비교검증 해 보였고, 이후에 수유행동(Beale & Manstead, 1991), 음주 운전(한덕웅·이민규, 2001), 온라인 구매행동(김명소·한영석, 2001)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측정치를 포함시키면 행동이 더 잘 예측된다는 계획된 행동 모형의 가설이 지지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적용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 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가하여 하나의 대안모형으로서 도덕적 책무를 포함한 모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양성평등행동의 설명에서 도덕적 책무의 역할

합리적 행위이론이 제안된 이후에, 자신들의 모델이 충분하다는 Fishbein과 Ajzen의 주장에 대하여, 의도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보다 더 많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되어 왔다. 즉 행동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로 예를 들면, 도덕적 책무(Kurland, 1995), 습관(Triandis, 1980) 또는 과거 행동(Bentler & Speckart, 1979), 자기정체성(Chang, Piliavin, & Callero, 1988; Granberg & Holmberg, 1990) 등이 제안되었다. 또 Eagly와 Chaiken(1993, 209쪽)은 의도의 선행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를, 행동에 대한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습관, 표적에 대한 행동, 궁극적 결과, 규범적 결과, 자기정체성 결과를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추가 요인으로 지각된 도덕적 책무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지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개인적인 신념을 의미한다(예. Schwartz & Tessler, 1972). 이 변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내면화된 도덕적 규칙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적 행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헌법에 명시된 바 있는 도덕적 책무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내면화된 도덕적 규칙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개인적인 도덕적 책무를 추가하여 설명할 때 설명력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예. Beck & Ajzen, 1991; Gorsuch & Ortberg, 1983; Kurland, 1995).

한편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한 연구들(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 김금미·한영석, 2002)의 결과를 볼 때 사회구조요인들 가운데 합법성

이 양성평등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합법성은 현재 지위가 결정된 과정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수준이다(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 즉 현재 지위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지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개인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남녀관계에서 합법성의 측정은, 현재 남녀의 지위관계에 관련하여 올바르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 합법성 점수가 높다면 그것은 현재 남성과 여성의 지위관계가 합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한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금미·한영석, 2002) 결과에서 합법성, 안정성의 사회구조적 변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들 가운데 집단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이 높았으며, 양성평등신념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적인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공변량구조 분석의 결과에서 합법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최종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대부분 양호했다. 이 결과는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에도 집단몰입요인이 양성평등행동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에서는 지위, 합법성, 및 안정성의 사회구조 변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은 낮았으며,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남녀평등 의도/행동 수준도 낮았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일관되게 두드러진 부분은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에 미치는 합법성의 영향이었다. 남성은 현재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사회정체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남

녀평등의식 및 행동이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 여성의 불리한 지위에 대한 합법성이 낮을수록 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몰입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신념이 높아지고 양성평등 행동도 높아졌다. 또 여성의 합법성은 양성평등 신념과 행동에 부정적인 직접 경로도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선행변인들 가운데 합법성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도덕적 책무의 영향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Kurland(1995)의 연구에서는 보험대리인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 행동의도에 미치는 도덕적 책무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Eagly와 Chaiken(1993, 209쪽)의 통합 모형에서도 규범적 결과를 대인 관계에서의 도덕적 규칙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양성평등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합법성을 현재 지위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지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개인적인 신념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었다.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증하는 이론들의 일각에서는 도덕적 책무를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쓸모있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합법성’의 측정 개념으로 볼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연구에서 쓰이는 도덕적 책무의 개념과 일관된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서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성평등행동의도를 예언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본 뒤, 이 모형에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포함시켰을 때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의 설명력이 각각 증가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더하여 도덕적 책무를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증가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에 포함되는 변인들과

함께 도덕적 책무를 포함한 수정모형에서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을 각각 타당하게 설명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남성의 양성평등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방 법

조사의 대상과 조사 방법

조사는 한국 성인 남성의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의 남자 성인 727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별 인원수는 각각 서울 342명(47.0%), 인천 73명(10.0%), 부산 111명(15.3%), 대구 96명(13.2%), 광주 38명(5.2%), 대전 40명(5.5%), 춘천 15명(2.1%)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의 연령별 인원수(비율)는 20~29세 146명(20.1%), 30~39세 164명(22.6%), 40~49세 164명(22.6%), 50~59세 164명(22.6%), 60~64세 88명(12.1%)이었다. 수거된 자료 중 각 구성개념에 대한 응답에서 빠진 문항이 없이 완전하게 작성된 715명(98.3%)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집 별 조사 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자녀수, 학력, 거주지, 직업은 표 1과 같다. 표집 1과 표집 2의 표집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표집 1과 표집 2의 차이분석 결과에서 카이스퀘어 값(χ^2)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표집 1과 표집 2가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양성평등행동 관련 요인들의 측정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선행 결정 요인으로 양

성평등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도덕적 책무, 양성평등행동의도를 측정하고, 현재 양성평등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문항들은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성별사회정체성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성별관계에 맞도록 수정하고 사회심리학 전공 석사 및 박사과 정생과 연구자들을 포함한 집단에서 여러 차례의 토의를 거쳐서 각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각 측정치의 문항들은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매우 그렇다). 또한 각 문항들은 평균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범위는 1~6점의 범위에 해당한다. 문항의 의미로 보아 역산하는 문항은 표 2에서 (R)로 표시하였다.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양성평등 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 정도로 측정할 수 있고, 각 문항은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그 가치 혹은 중요성과 관련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남자는 약해 보인다, ‘남녀평등’ 이슈를 무시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 ‘남녀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여자의 말에 동의하는 남자는 소심해 보인다, 내가 남녀평등적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남자에게 손해다,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남자가 진정 남자답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남자의 모습이다, 남녀차별 행동은 결국 남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면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이 척도는 이와 같이 양성평등에 관한 부정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요인에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단위: 명 (%))

항 목		사례수 (%)		
성별		표집 1	표집 2	χ^2
	남	359(100)	368(100)	.11
연령	20-29세	72(20.06)	74(20.11)	.03
	30-39세	80(22.28)	84(22.83)	.10
	40-49세	81(22.56)	84(22.83)	.06
	50-59세	81(22.56)	83(22.55)	.02
	60세 이상	45(12.53)	43(11.68)	.05
결혼 상태	미혼	84(23.33)	84(23.64)	
	기혼, 동거	269(74.72)	278(75.54)	.15
	이혼(별거), 사별	7(1.94)	3(0.82)	1.60
자녀 수	없음	88(24.79)	96(26.16)	.35
	있음	267(75.21)	271(73.84)	.03
학력	고졸이하	145(40.28)	153(41.58)	.22
	대학교 재학	46(12.78)	50(13.59)	.17
	대졸 이상	169(46.94)	165(44.84)	.05
거주지	서울	169(47.61)	174(48.20)	.07
	인천	37(10.42)	36 (9.97)	.01
	부산	54(15.21)	57(15.79)	.08
	대구	48(13.52)	48(13.30)	
	광주	20(5.63)	18 (4.99)	.11
	대전	20(5.63)	20 (5.54)	
	춘천	7(1.97)	8 (2.22)	.07
직업	학생	35(9.72)	35(9.51)	
	자영업	112(31.11)	119(32.34)	.21
	영업직	23 (6.39)	29(7.88)	.69
	사무직	79(21.94)	73(19.84)	.33
	생산직	28 (7.78)	22(5.98)	.72
	전문직	9 (2.50)	13(3.53)	.73
	공무원	21 (5.83)	25(6.79)	.35
	기타	53(14.72)	52(14.13)	.01

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적 규범

양성평등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

즉 개인을 둘러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력이 다. 이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나 이성 친구는 내가 남녀평등 행동을 하도록 권유한다, 내가 집안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눈치가 보인다, 부모님은 내가 설거지나 부엌일을 하지 않도록 말한다,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친구들이 말한다, 친구들은 남녀를 차별적으로 대하도록 부추긴다, 내가 남녀를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주위 사람들이 권유한다, 주위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도록 말한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면 눈치를 준다,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남녀차별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권한다, 내가 남녀차별 행동을 하면 애인 또는 배우자가 싫어한다, 내가 남녀차별적 행동을 하더라도 애인(배우자)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친구들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도록 부추긴다. 이 척도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에 관하여 부정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양성평등 행동을 하기가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지로 정의되며, 내가 남녀평등 방향으로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다, 나는 여자를 남자와 평등하게 대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한 방향으로 더 잘 행동할 수 있다,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나는 남녀평등적 행동을 하려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할 자신

이 있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나는 남녀평등적 행동을 하려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와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를 전환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양성평등 행동에 대한 통제감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덕적 책무

도덕적 책무는 양성평등 행동을 하는데 대한 정당성 지각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용들로 볼 때 사회정체성이론이나 상대박탈이론의 ‘합법성’ 혹은 ‘정당성’의 개념과 일관되는 바가 있다. 이 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관련하여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낸다.

양성평등행동 의도

양성평등행동을 하는데 대한 의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설거지와 같은 부엌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 나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할 생각이 없다,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을 작정이다, 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할 계획이다, 나는 남녀를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작정이다, 나는 여성과 남녀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다, 나는 사람들과 여권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다, 나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자와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사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양성평등에 반하는 문항을 역전(reverse)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적인 행동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행동

양성평등행동은 상황별로 응답자의 양성평등행동의 정도를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여성의 권위를 신장하기 위한 주장을 들으면 못들은 척한다, 나는 취업여성은 자녀출산 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나는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면에서 딸보다 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여성이 남녀 대졸자의 취업기회가 동등하지 않다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 이를 무시한 적이 있다, 나는 남자라는 이유로 가사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나는 호주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나는 여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나는 남녀평등에 관한 신문기사는 읽은 적이 없다, 나는 여성문제를 남녀평등주의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한다, 나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나는 여성 문제에 관련한 항의 운동, 시위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남녀평등'에 관련한 글을 관심있게 본다, 나는 우리 집안 가사 일을 어머니나 여자형제와 동등하게 나눠서 한다, 나는 남녀 대졸자의 취업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나는 어떤 행동이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이라서 그 행동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양성평등행동의도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에 반하는 문항을 역전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적인 행동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AS 8.01 for Windows로 처리되었다. 양성평등행동의도와 행동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삼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사용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무선적으로 반분하여 각각 분석함으로써 일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교차타당화를 수행하였다. 공변량 구조검증은 LISREL windows용 8.03판을 이용하였고, 이 때 모수 추정 방식은 일반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이 사용되었다. 모형의 부합도로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비표준부합치(NN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근접오차(RMSEA), 비교합치도(CFI)가 함께 사용되었다. 분석자료로는 공변량 행렬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구성개념별 신뢰도와 요인부하량

양성평등행동을 예언하는 각 구성개념 별 문항의 내용, 신뢰도계수, 문항-잔여 상관 및 요인부하량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8개 구성개념들의 신뢰도계수를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 α)로 측정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집 1에서 8개 구성개념들의 신뢰도계수 범위는 .72~.85로 나타났고, 표집 2에서는 .62~.84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다. 또한 양성평등행동을

표 2. 양성평등행동 구성개념 문항들과 신뢰도 계수, 문항-잔여 상관 및 요인 부하량

구성개념별 문항들(문항수)	표집 1		표집 2	
	평균 변별도	요인 부하량	평균 변별도	요인 부하량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태도(7문항)	$\alpha=.85$		$\alpha=.84$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남자는 약해 보인다	.59	.78	.62	.80
‘남녀평등’ 이슈를 무시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	.62	.75	.66	.75
‘남녀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여자의 말에 동의하는 남자는 소심해 보인다	.70	.73	.72	.72
내가 남녀평등적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72	.67	.68	.68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남자에게 손해다	.68	.66	.54	.60
남녀차별 행동은 결국 남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44	.62	.41	.57
내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면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58	.49	.53	.45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12문항)	$\alpha=.84$		$\alpha=.83$	
배우자나 이성친구는 내가 남녀평등 행동을 하도록 권유한다	.25	.80	.38	.80
내가 집안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눈치가 보인다	.50	.75	.51	.74
부모님은 내가 설거지나 부엌일을 하지 않도록 말린다	.50	.72	.53	.72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친구들이 말한다	.64	.72	.59	.70
친구들은 남녀를 차별적으로 대하도록 부추긴다	.65	.70	.65	.66
내가 남녀를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주위 사람들이 권유한다	.33	.59	.38	.58
주위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도록 말린다	.66	.56	.66	.56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면 눈치를 준다	.72	.55	.70	.56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남녀차별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권한다	.65	.51	.61	.42
내가 남녀차별 행동을 하면 애인 또는 배우자가 싫어한다	.24	.35	.16	.39
내가 남녀차별적 행동을 하더라도 애인(배우자)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47	.26	.30	.31
친구들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도록 부추긴다	.55	.25	.53	.16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6문항)	$\alpha=.71$		$\alpha=.62$	
내가 남녀평등 방향으로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다	.40	.64	.32	.68
나는 여자를 남자와 평등하게 대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다	.50	.62	.47	.6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한 방향으로 더 잘 행동할 수 있다	.53	.55	.47	.51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R)	.36	.51	.25	.48
나는 남녀평등적 행동을 하려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R)	.43	.50	.18	.22
나는 주변 사람들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할 자신이 있다	.47	.44	.37	.15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무(5문항)	$\alpha=.77$		$\alpha=.7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63	.81	.57	.74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40	.72	.34	.66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53	.66	.53	.66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69	.58	.61	.59
우리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3	.44	.54	.38

표 2. 계속

구성개념별 문항들(문항수)	표집 1(N=368)		표집 2(N=358)	
	평균 변별도	요인 부하량	평균 변별도	요인 부하량
양성평등행동의도(10문항)	$\alpha=.71$		$\alpha=.62$	
나는 설거지와 같은 부엌일은 하지 않겠다(R)	.57	.78	.58	.72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	.43	.73	.32	.71
나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할 생각이 없다(R)	.74	.67	.65	.69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을 작정이다	.57	.65	.55	.65
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평등한 방향으로 행동할 계획이다	.58	.65	.61	.64
나는 남녀를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작정이다	.51	.63	.56	.64
나는 여성과 남녀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다(R)	.53	.60	.57	.63
나는 사람들과 여권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다(R)	.55	.58	.53	.60
나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자와 상대하고 싶지 않다(R)	.62	.58	.60	.57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사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R)	.68	.49	.68	.38
양성평등행동(16문항)	16문항 전체 $\alpha=.77$		16문항 전체 $\alpha=.74$	
	$\alpha=.78$		$\alpha=.74$	
나는 여성의 권위를 신장하기 위한 주장을 들으면 못들은 척한다(R)	.59	.67	.65	.72
나는 취업여성은 자녀출산 시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R)	.53	.58	.57	.61
차 나는 여성이 남녀대졸자의 취업기회가 동등하지 않다고 불만을 이야기 할 때 별 이를 무시한 적이 있다(R)	.50	.57	.52	.60
적 나는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R)	.50	.56	.53	.59
나는 호주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R)	.47	.52	.47	.51
행 나는 남자라는 이유로 가사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R)	.44	.52	.48	.53
동 나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면에서 딸보다 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R)	.44	.51	.55	.62
나는 남녀평등에 관한 신문기사는 읽은 적이 없다(R)	.38	.47	.47	.55
나는 여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R)	.37	.42	.47	.52
	$\alpha=.82$		$\alpha=.74$	
평 나는 여성문제를 남녀평등주의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한다	.67	.76	.64	.75
나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3	.60	.48	.59
적 나는 여성문제에 관한 한향의 운동, 시위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51	.60	.52	.60
나는 우리 집안 가사 일을 어머니나 여자형제와 동등하게 나눠서 한다	.45	.55	.40	.49
행 나는 '남녀평등'에 관련한 글을 관심있게 본다	.43	.52	.50	.63
나는 어떤 행동이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이라서 그 행동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36	.44	.25	.41
동 나는 남녀대졸자의 취업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26	.31	.35	.28

※ R표시가 된 문항은 Reverse 문항

제외한 각 구성개념들이 모두 1요인이었으며 요인부하량도 높았다. 양성평등행동의 경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고, 2개 요인이 설명하는 설명량이 96%로 나타나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고 직각회전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차별적 행동과 평등적 행동으로 나뉘었으나, 이들 두 요인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가 두 표집에서 각각 .77과 .74로 양호하였으므로 두 요인을 평균하여 양성평등행동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 구성개념에 대한 6요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GFI는 .862, AGFI는 .835, NFI는 .917, NNFI는 .928, RMSEA는 .068, CFI는 .936으로, GFI, AGF를 제외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90을 넘었고, RMSEA가 .068로 양호한 부합지수를 보여 본 연구의 6개 구성개념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개념의 평균 및 개념 간 상호상관

먼저 구성개념들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표 3)에서 모든 구성개념들이 1~6점 척도에서 평균 3.5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도 양

성평등행동의도는 4점 대를 넘어서 가장 고무적이었다. 또한 표집 1과 표집 2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6개 구성개념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표집이 서로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하였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도덕적 책무를 제외한 요인들 간의 상관이 표본 1과 표본 2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특히 양성평등행동의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선행요인은 표집 1과 표집 2에서 모두 태도였다(표집 1. $r = -.586, p < .001$, 표집 2 $r = -.566, p < .001$). 그리고 양성평등행동과 가장 상관이 높은 선행요인은 행동의도였다(표집 1 $r = .611, p < .001$, 표집 2 $r = .782, p < .001$). 이는 전통적인 태도-행동의 관계에 관련한 견해와 일관되며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장과도 일치된다.

양성평등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모형비교

양성평등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표 3. 구성개념 측정치들간의 상관행렬

	표집1 M(SD)	표집2 M(SD)	<i>r</i>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력	도덕적 책무	양성평등 행동의도	양성평등 행동
태도	3.11(.76)	3.17(.76)	1.07	-	.634**	-.232**	-.193**	-.566**	-.367**
주관적규범	3.15(.63)	3.19(.65)	.73	.689**	-	-.178**	-.048	-.463**	-.304**
행동통제력	3.80(.59)	3.79(.55)	-.41	-.366**	-.293**	-	.352**	.399**	.353**
도덕적 책무	3.92(.67)	3.93(.62)	-.09	-.215**	-.093	.430**	-	.511**	.410**
양성평등행동의도	4.09(.68)	4.07(.65)	.22	-.586**	-.497**	.574**	.490**	-	.609**
양성평등행동	3.52(.49)	3.50(.47)	-.65	-.496**	-.358**	.494**	.435**	.611**	-

주1. * $p < .05$, ** $p < .01$

주2. 상관행렬의 좌하부분은 표집 1의 상관이고 우상부분은 표집 2의 상관이다.

들로 구성된 모형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가정 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표집 1에서 36.5%, $F_{(2, 365)} = 102.88, p = .000$ 였고, 두 예측변인 가운데 태도($\beta = -.464, p < .000$)가 주관적 규범($\beta = -.178, p < .000$)에 비해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본 2에서 이 두 요인이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33.9%, $F_{(2, 355)} = 91.15, p = .000$ 였다. 표본 1과 마찬가지로 태도($\beta = -.456, p < .000$)가 주관적 규범($\beta = -.175, p < .000$)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력 요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표본 1에서 세 개의 예측변인으로 양성평등행동의도를 50.4% 설명하였다, $F_{(3, 364)} = 124.64, p = .000$.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추가되었을 때 합리적 행위이론에 비해서 14.4%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표본 2에서는 세 개의 예측변인이 양성평등행동의도를 41.2% 설명하였고, $F_{(3, 354)} = 82.70, p = .000$, 추가로 증가된 설명 변량은 7.2% 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표 4. 양성평등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도덕적 책무가 포함된 모형			
	B	β	Sr^2	P	B	β	Sr^2	P	B	β	Sr^2	P
표집1	5.896				3.746				3.135			
태도	-.415	-.464	.344	.000	-.414	-.463	.343	.000	-.259	-.452	.343	.000
주관적규범	-.192	-.178	.017	.002	-.191	-.177	.016	.004	-.199	-.203	.016	.000
추가요인					지각된 행동통제력				.333 .291 .144 .000			
					.468 .408 .144 .000				도덕적 책무 .287 .284 .065 .000			
	$R^2 = .365$				$R^2 = .504$				$R^2 = .569$			
	$Adj R^2 = .357$				$Adj R^2 = .500$				$Adj R^2 = .565$			
표집2	5.870				4.428				3.375			
태도	-.390	-.456	.321	.000	-.343	-.400	.321	.000	-.274	-.320	.321	.000
주관적규범	-.174	-.175	.018	.001	-.160	-.159	.018	.002	-.215	-.214	.018	.000
추가요인					지각된 행동통제력				.177 .150 .072 .001			
					.328 .277 .072 .000				도덕적 책무 .402 .386 .127 .000			
	$R^2 = .339$				$R^2 = .412$				$R^2 = .539$			
	$Adj R^2 = .335$				$Adj R^2 = .407$				$Adj R^2 = .533$			

통제력에 새로운 변인으로 도덕적 책무를 추가하여 양성평등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네 개의 예측변인이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표본 1에서 56.9%, $F_{(4, 363)} = 120.15, p = .000$,로 나타나 6.5%를 추가로 더 설명하였고, 표집 2에서는 53.9%, $F_{(4, 353)} = 103.25, p = .000$,로 나타나 12.7%를 더 설명하였다. 특히 표집 2에서는 도덕적 책무가 새로운 변인으로 추가될 때, 태도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하는 모형비교

양성평등행동을 결정하는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을 결정한다고 제안하였는데, 표집 1에서 행동의도가 양성평등행동의 전체 변량의 37.1%, $F_{(1, 366)} = 218.90, p = .000$,를 설명하였고, 표집 2에서는 37.4%, $F_{(1, 356)} = 210.36, p = .000$,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할 때 행동의도에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증한 결과, 표집 1에서 40.5%를 설명하여, $F_{(2, 365)} = 124.10, p = .000$, 3.1%가 더 설명되었다. 표집 2에서도 38.6%를 설명하여, $F_{(2, 355)} = 111.50, p = .000$, 1.4%의 설명력 증가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도덕적 책무를 추가하여 양성평등행동을 예측한 결과에서, 세 개의 예측변인들이 양성평등행동을

표 5. 양성평등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도덕적 책무가 포함된 모형			
	B	β	Sr^2	P	B	β	Sr^2	P	B	β	Sr^2	P
표집1	1.691				1.380				1.222			
의도	.443	.609	.371	.000	.357	.489	.374	.000	.319	.437	.374	.000
추가요인					지각된 행동통제력				.152 .182 .031 .000			
					.178 .213 .031 .000				도덕적 책무			
									.106 .143 .015 .002			
	$R^2 = .371$				$R^2 = .405$				$R^2 = .420$			
	$Adj R^2 = .369$				$Adj R^2 = .402$				$Adj R^2 = .415$			
표집2	1.431				1.331				1.305			
의도	.447	.661	.374	.000	.405	.557	.371	.000	.370	.508	.371	.000
추가요인					지각된 행동통제력				.096 .111 .014 .016			
					.113 .131 .014 .004				도덕적 책무			
									.084 .154 .009 .024			
	$R^2 = .374$				$R^2 = .386$				$R^2 = .395$			
	$Adj R^2 = .372$				$Adj R^2 = .382$				$Adj R^2 = .389$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표집 1에서 42.0%로 나타나, $F_{(3, 364)} = 87.76, p = .000$, 1.5%의 설명력 증가를 가져왔다. 표집 2에서 39.5%가 설명되었고, 그 결과 $F_{(3, 254)} = 76.89, p = .000$. 0.9%의 설명력 증가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도덕적 책무가 포함된 모형은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의 55.4%, 그리고 양성평등행동의 40.8%를 설명하는 비교적 강력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Beck과 Ajzen(1991), Gorsuch와 Ortberg(1983), Kurland(1995)의 연구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개인적인 도덕적 책무를 추가하여 설명할 때 설명력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할 때 도덕적 책무의 영향이 비교적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상이 ‘남자’라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은 양성평등적인 도덕적 책무를 지니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게 부과하는 태도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책무로 볼 때에는 양성평등적 행동을 하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져야 하지만, 실제로 태도 측정치를 볼 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태도,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도덕적 책무가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양성평등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도덕적 책무의 영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모형에서 양성평등행동의도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Goodman(1960; Sobel, 1982 재인용)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행동의도의 선행요인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도덕적 당위가 모두 표집 1과 표집 2에서 유의한 z값을 보여 양성평등행동의도는 양성평등행동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도덕적 당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공변량구조분석

앞서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는 태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낮을수록,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높을수록, 도덕적 책무가

표 6. 양성평등행동의도의 매개효과 분석

		선행변인 -> 매개변인		매개변인 -> 결과변인				
	선행변인	매개변인	결과변인	B	Std. Error	B	Std. Error	z
표집 1	태도			-.485	.037			-9.79
	주관적규범	양성평등	양성평등	-.465	.047	.443	.03	-8.21
	지각된 동통제감	행동의도	행동	.472	.057			7.21
	도덕적 당위			.532	.047			7.87
표집 2	태도			-.524	.037			-10.26
	주관적규범	양성평등	양성평등	-.536	.048	.447	.03	-8.92
	지각된 동통제감	행동의도	행동	.658	.048			10.07
	도덕적 당위			.495	.045			8.34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행동의 경우에는 양성평등행동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및 도덕적 책무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가정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의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에서 설정한 경로들이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가설에서 제시한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10, AGFI는 .892, NFI는 .937, NNFI는 .955, RMSEA는 .04, CFI는 .960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90을 넘었고, RMSEA가 .05에 못 미쳐서 자료가 가설에 부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와 양성평등행동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선행변인들을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알아보고, 이에 추가적으로 도덕적 책무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서 양성평등행동의도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해서 35.2%(표집 1 36.5%, 표집 2

33.9%),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서 45.9%(표집 1 50.4%, 표집 2 41.2%)가 각각 설명되었고, 양성평등행동은 각각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해서 37.3%(표집 1 37.1%, 표집 2 37.4%),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서 39.6%(표집 1 40.5%, 표집 2 38.6%)가 각각 설명되었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변인들에 도덕적 책무가 추가되면 양성평등행동의도의 55.4%(표집 1 56.9%, 표집 2 53.9%), 양성평등행동의 40.8%(표집 1 42.0%, 표집 2 39.5%)가 설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행동의도를 설명하는 가설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성이 지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에 관련된 선행변인 가운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도덕적 책무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었다.

전술한 모형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남녀평등행동의 근인(近因)으로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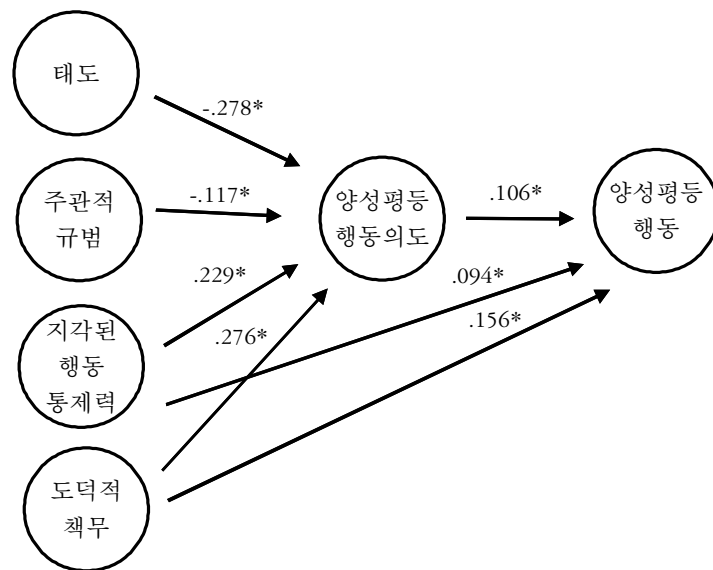


그림 3. 양성평등행동을 설명하는 대안 모형

의도를 밝히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 행동의도와 양성평등행동을 증가시키려면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지에 관하여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여성부에서 위촉하고 있는 남녀평등의식 양성 교수요원의 강의안을 개발할 때,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도록 교육할 수 있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및 도덕적 책무에 역점을 두어 강의한다면, 양성평등 행동 및 행동의도에서 40% -50%의 설명이 가능하므로 그만큼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외국의 여러 나라와 다른 독특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들에 관한 차별문화가 서양의 나라들에 비하여 우세하다고 지각된다(한덕웅·김금미, 2003).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 문화이므로, 합리적 행위이론의 한 변인인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에 관한 심리학적인 변인들의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 및 의식의 확산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행동이 표출되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될 수 있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선진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이론에 기반하지 않은 시행착오식의 여성에 관련한 기업이나 국가의 정책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있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집합주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결과로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

도에 기여하는 양이 유의하지만 비교적 적었는데, 이는 남성들의 양성평등행동에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에 관련한 행동양식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양성평등행동이 단발적인 행동이라면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크겠지만, 다른 행동들보다 성장과정을 통해 부모님과 같은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의 가치가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에 행동이므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적었을 수 있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이나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다른 행동들과 다른 특징일 수 있고 양성평등행동의도와 행동에 관련된 독특한 특징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견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책무의 독특한 기여에 대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교차타당화 연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제한점이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서도 도덕적 책무의 영향이 나타날지, 즉 도덕적 책무가 있으면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정체성의 독특한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다. 사회정체성 가운데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 김금미·한영석, 2002).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현재 모형에 성별사회정체성을 추가할 때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할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에 관한 더 세밀한 예견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의 경우 사회정체성이론을 설명하면서 이에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의 일부 변인을 적용한 예는 있지만(김금미·한영석, 2002),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의도 및 행동을 연구하면서 계획된 행동 모형에 성별사회정체성을 추가한 예는 아직 없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 남성들의 양성평등에 관련한 의식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그것 이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태도이론을 적용하여 양성평등행동을 예견하는 본 연구와 이후의 연구들은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제협력기구 (2002). 경제협력기구.
- 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금미·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명소·한영석 (2001).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온라인 구매행동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17-33.
-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3-33.
- 여성부 (2002). 아름다운 평등세상.
- 한덕웅·김금미 (2003).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와 공동사회가치 인식의 합치와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75-376.
- 한덕웅·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Ajzen, F., & Madden, T.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Dorsey.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eale, D. A., & Manstead, A. S. R. (1991). Predicting mothers' intentions to limit frequency of infants' sugar intake: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409-431
- Beck, L., & Ajzen, I. (1991). Prediction dishonest action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 285-301.
- Bentler, P. M., & Speckart, G. (1979). Models of attitude-behavior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86, 452-464.
- Charng, H., Piliavin, J. A., & Callero, P. L. (1988). Role identity and reasoned action in the prediction of repeated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303-317.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Reading, Mass.
- Gorsuch, R. L., & Ortberg, J. (1983). Moral obligation and attitudes: Their relation to

-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25-1028.
- Granberg, D., & Holmberg, S. (1990). The intention-behavior relationship among U.S. and Swedish vote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44-54.
- Kurland, N. B. (1995). Ethical intentions and the theories of reasoned and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297-313.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a).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Norman, P., & Smith, L.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exercise: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r, behavioural intentions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403-415.
- Schwartz, S. H., & Tessler, R. C. (1972). A test of a model for reducing measured attitude-behavior discrep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25-236.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erry, D. J., & O'Leary, J. E.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5, 199-220.
- Triandis, H. C. (1980).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H. E. Howe, Jr. & M. M. Page(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9*(Vol.27, pp.195-259).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Applications of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Gender Equality Action of Korean Male Adults: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Moral obligation

Kim Myoung-So

Hoseo University

Kim Keum-mi

Sungkyunkwan University

Han Young-seok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1) examine the effe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explaining gender equality intention as well as gender equality behavior, i.e., test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2) investigate the role of moral obligation in the prediction of gender equality behavior, and (3) propose and test the research model which includes the moral obligation variable in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nationwide sample of 727 Korean male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Both Reliability analysis and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showed that most factors were unidimensional with moderate to high reliability. The results from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gender equality intention was explained 35.2% by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45.9% b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hile gender equality behavior was explained 37.3% and 39.6% respectively by each theory. When the moral obligation was added into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nce was increased into 55.4% for gender equality intention and 40.8% for gender equality behavior. Furthermore, the moral obligation was more important predictor than the subjective norm. The results from the LISREL supported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ith reasonable goodness of fi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words : gender equality behavior, gender equality intenti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moral obligation